"연기도, 예능도 잘하는 트로트 가수 될래요"

김희재, MBC 새 토일드라마 '지금부터, 쇼타임!'으로 연기 도전
"배우의 꿈 실현할 수 있어 영광…신인 자세로 진지하게 임했죠"

"트로트 가수지만 배우도 할 수 있고, 예능도 할 수 있고, 광고도 찍을 수 있고…. 다 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23일 첫 방송을 앞둔 MBC TV 새 토일드라마 '지금부터, 쇼타임!'으로 연기에 도전장을 내민 '미스터트롯맨' 김희재를 최근 강남구 신사동의 한 카페에서 만났다.

앨범 준비를 하던 중 드라마 출연 제안을 받았다는 그는 "어렸을 적부터 막연하게 품어왔던 배우의 꿈을 실현할 기회가 생겨 너무 영광스러웠다"고 소감을 밝혔다.

"초등학생 때 학교나 교회에서 하는 연극을 하면서 연기라는 것에 매력을 느꼈어요. 노래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 가수를 하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감사하게 (연기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죠."

2020년 TV조선 오디션 프로그램 '내일은 미스터트롯'을 통해 트로트 가수로서 굳건한 입지를 다진 그가 갑작스럽게 드라마 출연을 결심한 것은 '의외의 행보'라고 평가받기도 했다. 김희재는 자신 또한 그만큼 걱정이 많았다고 털어놨다.

"'미스터트롯'으로 인기가 좀 생겨서 우연한 기회에 연기에 한 번 도전해봤다는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았어요.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배우 한 번 해볼까?'라는 마음으로 연기하는 건 연기자의 길을 쭉 걸어온 선배님들께 도리가 아니니까요. 정말 신인의 자세로 진지하게 더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어요."

'지금부터, 쇼타임!'에서 파출소 순경 이용렬을 연기한 그는 자신의 역할에 대해 "요즘 'MZ세대'처럼 굉장히 솔직한 편"이라면서 "경찰이라는 특수성을 제외하고는 평범한 우리 주변의 20대 청년의 삶을 대변할 수 있는 인물"이라고 설명했다.

또 "낯간지러운 말을 잘하지 못하고 솔직하다는 점에서는 실제 제 모습과 비슷한 것 같다"면서도 "다만 로맨스에 있어서 용렬이는 좋아하는 사람에게 직진하는 편인데 저는 상대의 마음을 존중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번 작품을 통해 연기에 재미를 느꼈다는 김희재는 "앞으로도 계속 연기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잘 맞았다"면서도 "연기는 아직 어렵고 노래는 재밌다"며 음악에 대한 변치 않는 애정을 드러냈다.

"노래는 거짓말 조금 보태서 23년은 한 것 같은데, 연기는 28년 만에 처음이잖아요. 그런 점에서 연기는 어렵고 노래가 좀 더 재밌어요. 그래도 제가 새로운 인물로 살아볼 수 있다는 게 연기의 매력 같아요. 용렬이를 연기하면서 어렸을 때 가졌던 경찰의 꿈을 조금이나마 이루게 됐으니까요."

정규 앨범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힌 그는 "드라마에 도전했던 6~7개월 동안 가수 김희재를 보고 싶어해 주셨던 분들을 위로하기 위해 더 다양한 음악을 담고자 노력하고 있다"면서 "6월 안에는 좋은 앨범으로 팬분들을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가수로서 오래오래 기억에 남는 아티스트가 되고 싶어요. 꼭 정상에 오르지 않더라도, 문득 제 노래가 생각날 수 있는 가수가 되는 게 목표예요. 배우로서는 지금은 좀 미숙하지만 앞으로 더욱 발전해 나가는 배우, 행보가 기대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일단은 다음에도 작품을 할 수 있는 영광이 주어지는 게 목표입니다. (웃음)" /연합뉴스

드라마에 도전하는 트로트 가수 김희재. /연합뉴스

역대 최고 흥행작 '명량' 후속 '한산:용의 출현' 7월 개봉

국내 박스오피스 역대 최고 흥행작인 '명량'의 후속작 '한산:용의 출현'이 올여름 개봉을 확정했다.

배급사 롯데엔터테인먼트는 '한산:용의 출현'을 오는 7월 말 개봉한다고 18일 밝혔다.

김한민 감독의 이순신 3부작 프로젝트 중 두 번째 작품인 '한산'은 1592년 7월 이순신 장군이 이끄는 조선 수군이 '학익진'으로 왜군을 크게 무찔렀던 한산해전을 그린다.

'명량' 최민식에 이어 '한산'에서는 박해일이 이순신을 연기했다.

2014년 7월 개봉한 '명량'은 1761만명을 동원하며 국내 역대 박스오피스 1위를 지키고 있다.

이순신 3부작의 마지막 작품으로 김윤석이 주연한 '노량:죽음의 바다'도 지난해 6월 촬영을 마친 바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교제 공개한 윤계상 5살 연하 사업가와 6월 결혼

윤계상

배우 윤계상이 지난해 교제 사실을 공개한 여성 사업가와 결혼식을 올린다.

윤계상 소속사 저스트엔터테인먼트는 18일 "윤계상이 6월 9일 서울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결혼식을 올린다. 식은 비공개로 치를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계상은 지난해 5살 연하 사업가와의 열애를 인정했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결혼식에 앞서 혼인신고를 먼저 했다.

1999년 그룹 지오디(god)로 데뷔한 윤계상은 이후 연기자로 전향해 영화 '범죄도시'·'말모이'·'유체이탈자', 드라마 '굿 와이프'·'크라임 퍼즐' 등에 출연해왔다. /연합뉴스

판타지 드라마 '안나라수마나라' 내달 넷플릭스 공개

넷플릭스가 마술을 소재로 한 판타지 뮤직 드라마를 다음 달 선보인다.

넷플릭스는 지창욱 주연의 '안나라수마나라'를 다음 달 6일 공개한다고 18일 밝혔다.

'안나라수마나라'는 하일권 작가의 동명 웹툰을 원작으로 한 작품으로 꿈을 잃어버린 소녀와 꿈을 강요받는 소년 앞에 어느 날 마술사 리을이 나타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다룬다.

지창욱이 버려진 유원지 공연장에 사는 미스터리한 마술사 리을 역을 맡았고, 최성은이 너무 일찍 어른이 되어버린 소녀 윤아이로 분해 호흡을 맞춘다.

윤아이의 같은 반 친구로 타인과 교감할 줄 모르고 공부에만 몰두하는 나일등 역에는 황인엽이 낙점됐다.

원작 웹툰은 2010~2011년 연재 당시 꿈과 현실 사이에서 흔들리는 이들의 고민과 성장을 마술이라는 환상적인 요소로 풀어냈다는 호평을 받았고, 연극으로도 각색돼 무대에 오르기도 했다.

드라마는 감정을 증폭시킨 노래와 안무, 두 눈을 사로잡는 다채로운 마술로 환상적인 세계를 구현하고, 인물들을 통해 따스한 위로를 전할 예정이다. 연출은 드라마 '구르미 그린 달빛', '이태원 클라쓰'를 연달아 성공시킨 김성윤 감독이, 제작은 JTBC스튜디오와 콘텐츠 지음이 맡았다. /연합뉴스

태진아, '오늘도 살아야 하니까' 발표…아들 이루 작곡

가수 태진아가 25일 신곡 '오늘도 살아야 하니까'를 발표한다고 소속사 진아엔터테인먼트가 18일 밝혔다.

'오늘도 살아야 하니까'는 그간 태진아가 선보인 흥겹고 빠른 박자의 노래가 아닌 간만의 정통 트로트다. 슬프고 애절한 멜로디가 태진아의 허스키한 목소리와 잘 어우러진다.

이번 신곡은 아들인 가수 이루 작곡, 태진아 작사로 부자(父子) 협업을 통해 만들어졌다.

이 노래는 '울지마요 울지마요 사는 게 그런 거예요 / 살다 보면 하루는 울고 하루는 웃고 / 그렇게 사는 거예요'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대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위로한다.

태진아는 같은 날 이 곡과 함께 '배신자'와 '명동의 눈물' 등도 수록곡으로 함께 내놓는다. /연합뉴스